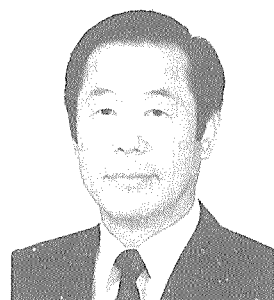


## 제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뛰자

김정식 /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덕전자(주) 사장



多事多難했던 辛未年 한해를 보내면서 먼저 電子工業人 여러분의 實業과 가정위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변함없이 저희 大德을 激勵해 주시고, 아껴주신 회원사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今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돌아켜보면 예년 이상으로 企業經營 여건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UR 조기타결 등 선진국의 강력한 시장개방노력과 함께 EC 統合, 北美 Block 등, 지역 保護貿易의 강화 그리고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한 輸出 競爭力 弱화 등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더욱 증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부진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부진과 품질 불량, 납기 지연 등의 문제와 高金利, 高賃金 등 제반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經營收支의 악화, 그리고 인력난, 자금난까지 겹쳐해를 더할수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년 역시 더 많은 변화와 치열한 競爭이 예상되어 대내외적인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電子産業分野에 있어서 제품의 小型化, 多技能化, SMD 技術의 급속한 진전 등, 신기술 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SET MAKER와 부품업체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핵심 부품의 공동 개발과 함께 유기적인 노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공업인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내년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91년 電子産業의 한해를 決算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미흡했던 점들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전자업계가 내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技術開發投資를 통해 技術力 倍加와 품질향상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의 변화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고품질,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국제경쟁에서 기술과 품질 우위를 앞세운 先進工業國들과의 치열한 競爭과 대등한 품질의 저가품을 앞세운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의 거센 挑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企業與件 속에서도 새로운 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의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투자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적시에 開發,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SMD 技術의 早期定着을 통해 제품의 輕簿短小化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기기의 小形化, 薄形化 및 회로의 FINE PATTERN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高密度實裝 設計技術, 接續技術, FINE CHIP 部品製造技術 등 表面實裝技術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업계의 共同開發勞力으로 超小形化 機器時代에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겠으며 이미 SMD 技術을 토대로 한 신제품 개발 경쟁이 激化되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도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

습니다.

셋째, Marketing 力量의 강화에 수출업체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C, 北美 Block 등 지역 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현지 유통과정 참여, 제품의 사후관리 및 Service Marketing 力量을 확대하는데 우리 업체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SET의 경쟁력 강화와 원산지 규정 등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확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품단독 수출시장 개척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는 경영전략으로 각품종 소량 수주 및 短納期 체제와 관리, 기술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객의 Needs가 다양화되어 감에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JIT 生産 System, TPM 등

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로 변화되고 있는 고객의 Needs를 다양화, 소량화, 소형화, 단납기, 고품질, 저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끊임 없이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에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업계의 사명감과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없이는 국가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Set Maker와 부품업체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 자본집약형 부품개발 및 애로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자금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차구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산업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의 우리 경제는 급속한 대외여건 변화로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高金利(資金

難), 高賃金, 元貨高評價 등 3고의 인력난, 수송난, 기술난 등 3난으로 내적인 경영여건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의 경제개발과정에서도 국가적 경제 위기는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제조업의 쇠퇴에 있다는 분석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간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되살리자”는 슬로우건 아래 다시 뛰자는 의식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 기업, 국민이 3位一體가 되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심과 사명감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한번 경제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신미년의 마무리와 함께 새해에도 전자공업인 諸位의 健闘와 發展을 祈願드립니다.

